"어려움은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

'강한 리더십 · 부드러운 카리스마 · 팔방미인 · 마당발, 전략맨에서 성실맨까지~'
대한민국 신문광고 현장은 그들이 지배한다. 그 이름, '독립언론 경향의 희망을 일구는 전사들!'

광고1팀

박재구 팀장 (영업총괄 겸 광고1팀장)

경쟁지 광고 현황체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광고 생각만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경상도 사내. 거침없는 입담과 부지런함으로 주변에 늘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불타는 애사심과 싸움닭 같은 기상은 난파선이라도 일으켜 세울 만큼 강한, 경향의 마케팅 영업총괄 데스크

박인수 차장

듬직한 체구와는 달리 부드럽고 예의바른 젠틀맨. 얼핏 보면 샌님 같지만 부드러움 속에 내재된 강인한 뚝심은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 스피드를 사랑하는 자동차광답게 민첩함이 돋보인다.

박정욱 차장

경향에 새롭게 둥지를 튼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며 열심히 뛰고 있다. 조만간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 것 같아요~

김권모 사원

저 멀리 완도 섬마을이 고향인 그는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이 엿보인다. 깡마른 체구에 '눈치 백단'인 그는 '부장급 사원'으로 불리며 선배들을 위협해 경계대상이기도 하지만, 섬소년다운 정서와 애교로 사랑 또한 독차지하는 불공평한(?) 위인이다. 출판담당으로 출판사란 출판사는 모조리 휩쓸고 다니는 깡다구의 소유자!

왼쪽부터 박정욱 차장, 김권모 사원, 박재구 팀장, 박인수 차장

왼쪽부터 이만복 사원, 최병탁 팀장, 권태형 차장

왼쪽부터 정은호 과장, 유성일 과장, 이종욱 팀장, 봉승근 차장

광고2팀

최병탁 팀장

광고계의 팔방미인으로 통하는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진솔함이 묻어나는 화술로 상대방에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다. 술을 잘 못해 '알코올 장애'를 자처하지만 거하게(?) 술 한잔 들이키며 까 보이는 엉덩이는 좌중을 자지러져요~

권태형 차장

광고국의 마당발. 후배들에겐 언제나 조언과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명 '군기반장'. 궂은 광고주 행사나 내부 단합대회에서도 늘 솔선수범하여 '워크샵 국장'으로도 불린다.

김성준 차장

장교 출신인 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광고주를 사로잡는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격 탓에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특유의 의젓함과 책임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만복 사원

광고국 막내로 얼마 전 장가를 간 초보신랑.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광고영업을 배우고 있는데, 편집국 기간제 사원으로 시작한 까닭에 경향신문 경력은 웬만한 중견사원보다 높다. 신문광고의 흐름과 내부직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영업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기대주!

광고3팀

이종욱 팀장

광스포츠칸 광고국에 근무하다가 얼떨결에 본지 광고3팀장을 맡은 지 어느덧 한 달! 4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장가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향의 대표 NO총각! 차분하고 꼼꼼한 업무추진력과 매너는 몇 번 장가를 다녀온 위인 같다.

봉승근 차장

야구선수 봉중근과 이름이 비슷해 일명 '봉의사'로 통하는 봉 차장. 깔끔한 용모와 준수한 외모만큼이나 매끄러운 일처리로 안팎 평판이 좋다. 그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데 주저함이 없어 경향의 '희망봉'으로 우뚝 설 날이 기대된다.

정은호 과장

부동산 담당.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광고물량이 감소해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광고는 과학'이라고 설파한 오길비의 애제자(?)답게 각종 데이터나 자료준비에 철저한 광고맨. 애처가로 소문날 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하다.

유성일 과장

맘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외모와는 달리 해병대 출신인 그는 '악으로 깡으로' 오늘도 광고영업 현장을 누빈다. '잘생긴 소도둑' 같지만 프로급 찍사(?) 실력으로 광고국의 셔터맨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